

전남 중부권

편백나무숲 장성 축령산

‘치유의 메카’로 거듭난다

산소·건강길 등 테마별 숲 개장 본격 서비스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숲 조성지로 널리 알려진 장성 축령산이 ‘치유의 메카’로 거듭난다. 장성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은 28일 축령산 치유의 숲 안내센터에서 ‘장성 치유의 숲’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숲 치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양수 장성군수와 김상복 군의장, 산림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 기념식 등 기념행사를 갖고 숲길탐방도 가질 예정이다. 서부산림청은 삼림욕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부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58ha에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주요 시설로는 축령산 10.2km 구간을 하늘길, 산소길, 숲내음길, 건강길 등 테마별 ‘치유의 숲길’을 조성했고, 229㎡ 규모의 ‘치유의 숲 안내센터’ 1동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림치유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치유 쉼터 1개소 ▲전망대 2개소 ▲쉼터 50개 ▲편백 집 로드 1개소 ▲습지데크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또한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

치유 지도사와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을 상시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다음카페 ‘장성치유의 숲’(cafe.daum.net/mom-mamhealing) 또는 전화(061-393-1777)로 가능하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지난 연말부터 ‘축령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해 현재 일일코스 19km, 반일코스 11km 등 총 6개 코스를 확정하고, 다음달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령산이 ‘치유의 숲’ 개장을 통해 산림휴양과 치유 관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관광명소가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숲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축령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축령산은 지난 2000년 산림청 주관의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영랑 선생 시혼을 떠올리며

30일~5월 1일 강진서 영랑문학제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1903-1950)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6회 영랑문학제’가 오는 30~5월 1일 이틀 동안 강진서 영랑생가와 강진아트홀 등지에서 열린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영랑기념사업회, ‘시와 시학’이 함께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영랑의 대표작인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가곡과 대중음악으로 재탄생해 ‘영랑시문학의 밤’을 수놓는다. 작곡가 임금수씨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3개의 시에 붙인 곡을 영랑의 손녀인 소프라노 김혜경씨가 부르며, 가수 안지환씨도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가사로 작곡한 노래를 선보인다.

이밖에 첫날에는 도서관 문화 한마당, 유명작가 동화 증정, 영랑과 함께 하는 명품청자 경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성부(본상), 최두석(우수상)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된 ‘9회 영랑 시문학상’ 시상식도 열린다. 둘째 날인 5월 1일에는 제7회 전국 영랑백일장 대회와 전남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모란예술제 등이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영랑기념사업회 회장 홍수 사무국장은 “영랑선생의 서정적 시의 배경을 만끽하고 시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장성역 KTX 하루 7회 증편 운행

내달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음달 1일부터 KTX가 장성역에 7회 증편 운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6일 KORAIL에 따르면 현재 장성역은 ▲KTX 16회 ▲새마을호 10회 ▲무궁화호 24회 총 50회의 여객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열차 시간표 개정으로 KTX가 16회에서 23회로 증편 운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주민과 광주

광산군 일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장성역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장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와 축령산, 홍길동 테마파크, 필암서원 등 문화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장성을 많이 찾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령산 산

소셜차 관광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KTX 추가 정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차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한 바 있다. 민홍태 장성영장은 “역사 주변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명소와의 연계버스 운행 등을 장성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장성역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

음료 무료 제공 등 주민 호평

화순군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화순군은 민원인의 서류 신청 후 대기시간 효과적 활용과 주민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실 내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도서 기증운동과 신규도서 구매를 통해 시, 소설, 만화, 경제, 건강, 유아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600여 권을 확보했다. ‘작은 도서관’은 민원실을 방문하

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책은 무료로 대여(대출기간 10일)해 읽을 수 있다. 또한 커피 등 음료 무료제공, 건강 측정기, 지적도면 무료 열람시스템, 주민편의방 등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화순군 민경총 중합 민원과장은 “민원실을 주민중심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사회공헌 이웃사랑 우리가 앞장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가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암지사 직원 30여명은 최근 노인 요양시설 ‘행복나눔 효요양원’을 방문해 쌀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안마와 노래, 주변 환경 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영암지사는 수질관리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군서면 도갑제와 성암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영암지사는 매월 1회 ‘내 고향 물 살리기’ 행사를 실

천하고 있다. 하상수 영암지사장은 “공사가 가진 인적·물적 재원을 활용해 봉사활동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영선기자 moon@

전북

전북에 기업 신·증설하면 투자액의 최고 15% 지원

전북도가 도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최고 15%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국비 보조금으로 수도권이나 도내 기업이 전북지역에 신·증설하면 투자액의 10~15%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며 투자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이 현재 고용 인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투자후 신규 채용인원이 당초 고용계획을 넘어서면 추가 채용인원 비율에 따라 최대 5%까지 더 지원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감사원, 전주서 일일 이동민원센터 운영

감사원 광주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광주센터)는 27일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내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1층)에서 일일 ‘이동 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이동민원센터’에서는 국민생활 관련 불편사항과 함께 ▲각종 창업·공공장립 신청

▲인·허가 등 기업불편과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또 정부 또는 자치단체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뿐 아니라 법령이나 제도가 불합리해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도 접수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부도난 군산 은파관광호텔 내달 2일 첫 경매

4년째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군산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법원의 첫 경매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은파관광개발에서 제기한 강제집행절차 가져본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첫 경매일

이 5월2일로 확정됐다. 일부에서는 감정가가 낮은 액수(89억4000여만원)가 아닌 데다 공사대금을 돌려산 30억여원의 유치권이 설정된 탓에 2~3차례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남원 항공우주전문대 밤하늘의 별 무료 관측

남원 항공우주전문대는 ‘제81회 춘향제’ 기간인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공개 관측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달과 토성 등 천체관측을 비롯해 4D영상관람, 해시계 측정법, 가상 항공체험, 천문영상, 천체사진전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0월 문을 연 남원 항공우주전문대는 천문과학과 항공공학이 아우러진 호남권 대표적인 과학관이다. 문의 063-625-8164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경찰, 자율방범대원 등 한마음 단합대회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26일 오후 소공원에서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자원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과 방범대, 자원위원들은 축구, 고리 던지기 등 다

양한 게임과 장기자랑을 통해 상호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조용식 경찰서장은 “앞으로 공감하는 순찰활동을 하면서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청보리밭 사잇길로~ 상춘객들이 드넓게 펼쳐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청보리밭(100만여㎡) 사잇길을 걸으며 신록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내버스 파업 140일만에 타결

노조 인정하고 고소·고발 취하 등 5개항 합의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이 140일만에 타결됐다. 전주 시내버스 5개회사 대표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26일 노·사간 단체협상안에 서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운수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가 쟁점이었던 ‘노조인정’과 ‘성실교섭’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정에서의 해고된 조합원도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르면 이날 오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하고 가결되면 파업을 풀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과 맺은 단체협약을 민주노총에도 준용하며 이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각사 대표가 참여해 월 3회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고창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고창 운곡습지와 제주 동백동산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지난 22일 고창 운곡 습지와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신규 지정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람사르 습지’ 추가 등록으로 국내 람사르 습지는 우포늪(경남 창녕), 무안갯벌(전남 무안) 등 14개에

서 16개(총면적 145.6km)로 늘었다. 고창 운곡습지(1.797km)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던 산지형 저층 습지 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과 정을 거쳐 원습지 형태로 복원됐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인 수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을 비롯해 식물 459종 등 모두 549종이 서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기자노트

정부는 지난 10월 오는 2015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분석, 성능 검사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트 베드’(Test Bed)를 올해 중으로 4~5곳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전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광주광역시, 경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테스트 베드’ 선정을 위한 실사평가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전북대 산하 기관인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태양광 ‘테스트베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2개소의 태양광 ‘테스트 베드’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타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북도의 지원은 아쉽다. 전북도는 현재 LH 분산배치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타 광역단체에 태양광 ‘테스트베드’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테스트 베드’에 선정된 광역단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가 연구자금이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반면 타 광역단체는 180억원까지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연구자금 투자규모에서 전북도를 앞서 ‘테스트 베드’를 타 광역단체에 뺏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북도의 신재생에너지 ‘테스트 베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한다. /knews@kwangju.co.kr